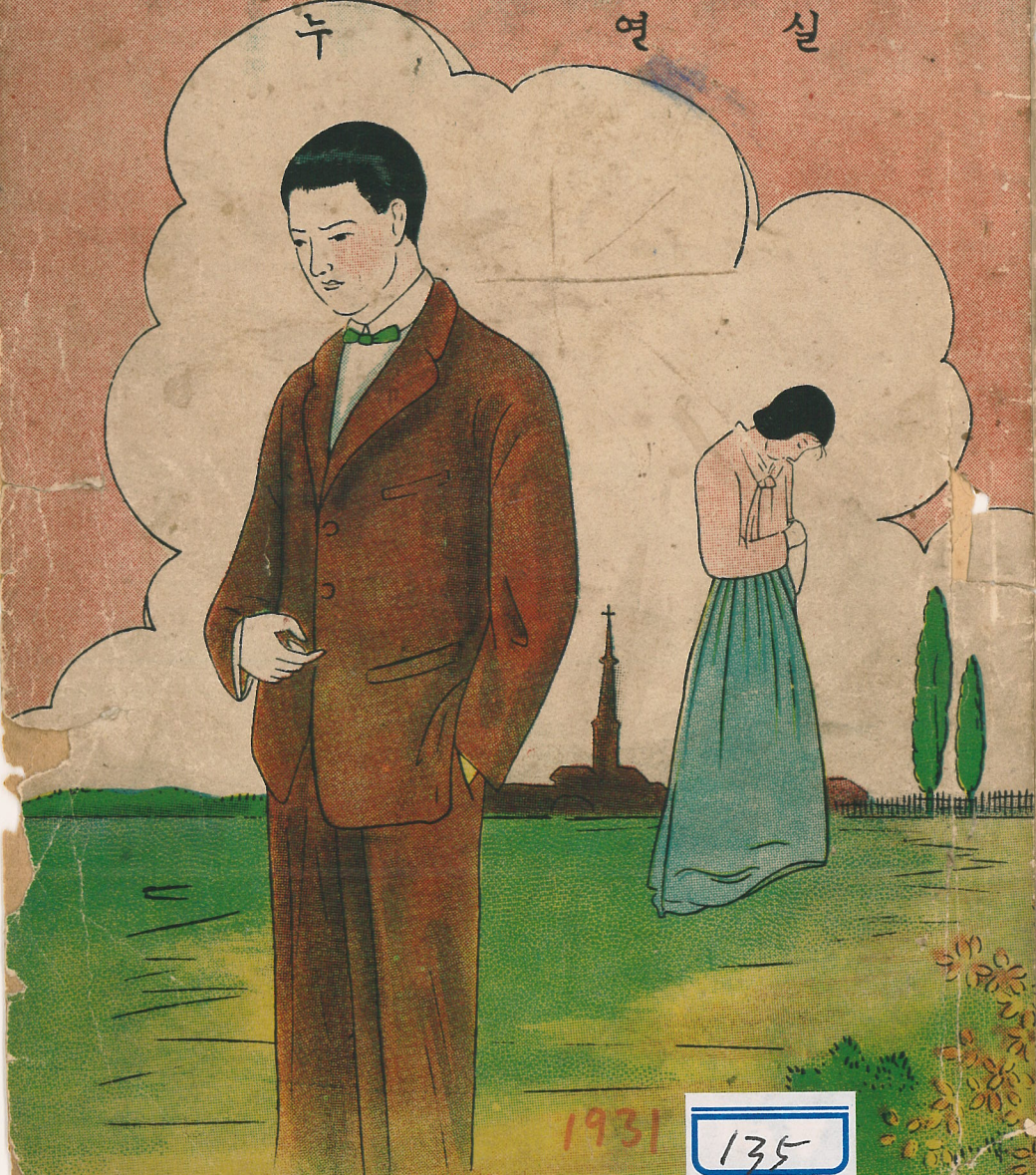


新 小 說
失戀의 淚

누 연 실



1931 135
行發 館書 東滙 城京

Inches 1 2 3 4 5 6 7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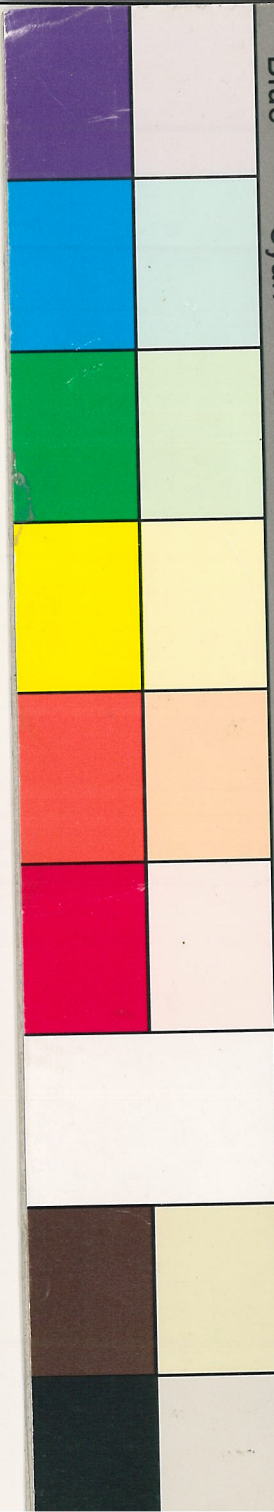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失戀의淚



失

戀

의

淚

1

볼이왔다!

쏟아하네도

잠들었든

완—우주에난

뭇르로서

뭇싸지

볼향기가

빈틈없

사 가득이 채워있다

산, 들, 시내, 바다, 무엇무엇 할것업시

외긴갓만물은 다갓치질거워뒹며 웃고노래한다

지난겨울

사나운눈과바람

에 몹시도휘달이든 느러진수양버들가지도

새로피여올나오는

흰구름덩이

갓치 빛나고도연한볼일괴에 가느—사하목을가웃거리며

알수도업는미묘한

형례로 질거운볼을 노래하고있다

마음업는초목도 아릅다운볼은 다가치 질거워하는듯하다

파릇파릇한 잔디밭우에 점々이피여잇는 일흠도물으는

저근풀솨을 뒤놓

흔신으로 조심스럽게밟으며 나이는 한—이십될나말락한

두처녀가

억개

를갓치하여 걸어오는데 그들에얼골에는 수색이가득하여

초목들싸지 질

거워하는볼도 그리깃버뵈이지안는듯하다

登錄番	3178
分類番	
圖書番	

失戀의 淚

『영자씨 금년철은 꾀도느진게예요 작년에는 이때에 진달내뿔이 만발 하였섯는데...』

『참 그대요 올에는 지금이야 겨우 필라말라하구려』

영자는 『진달내뿔』 이라난말을듯더니 문득지나간 모든무서운뜻김이 일시에 번개갓쳐소사올나와서 눈을머늘거니쓰고 입속으로 꾀로운듯이 혼자중얼거 린다 (이때다 이때다 그무섭든때가 진달내뿔이 꾀라고하든이때다) | 영 자는 다시고개를들어 괴속사 북은연와집웅에서 손뼉질하듯이 아물々々 하는 아지랑이를바라보며 삼년전자괴에진세와 현재자괴에 형편을 번가 라가며 생각하여본다

삼년이라면 그리긴 | 세월은안이나 그동안 영자의신상에는 만흔변화가생 겠다 그뻘안이라 영자의성질까지도 판단으로달나지고말었다 삼년전에그 리활발하고 아름답든모습은 하나도남은것이업고 지금은 단지침착하고슬 픈빛만 얼골에가득하다

영자의 풀씨업서뵈이는얼골은 마치방장피려고웃든장미뿔이 하로밤사나운 비와 바람에 몹시부덕기여 시드러진듯하다 그러나 만일 온화한뻬과동 군(東君)의돌아봄을 험입을것갓흐며 장미화는 명년이라도 다시피어나을 험이잇겠지만 영자에게는 그럴힐조차업다

失戀의 淚

『나도저렇게 돌아갈집이라도 잇섯스면...』

말을맛치고 영자는 다시고개를숙인다 그눈에는 눈물이 떠러질듯々々하 게괴여었다 삼년전영자에게는 사랑하여주시든 부모님도게시고 먹고살어 갈만한재산도잇섯다 그러나우연한병으로 영자의아버지가 먼저다시오지못 할길을떠나시고 뒤밧쳐어머님까지도 이세상을 바리고말었다 그리고혈죽 이라고는 단지한사람밧게업는 영자의형님조차도 작년겨울에 똑갓흔병으 로 마자이세상을떠나버리고마니 영자에게는 과연누구라고차저가랴야 차 저갈만한친족이라고는 한사람도업게되엇더라

영자는 하로밤사나운비와 바람보다도 단풍을재촉하는 모진서리를받음이나 조금도달음업다

(아 | 아 그대가그무섭든그때이다) 영자는 다시중얼거린다 그리고때々로뿔 썰간괴덩이를도하며 꾀로워하든 어머니의모양과 그러면서라도 꾀해안즌 자괴를보면 처량한미소를씩우고 『영자야 너는부대목조심을잘하여 이런몹 슬병에걸이지말도록하여라』 하사든 어머니의목소래까지도 『마조대면한것갓 처 분명히들이는듯하다』

영자는 멧번인지 입속으로 『죽엄<』 하며 되뇌고있다 영자는 맞치 자괴일선이 몹슬악마들이 튀놀고잇는 수천갈이나되는 길고길혼 무저항

失戀의 淚

(無底坑) 밧으로 떠러져들어 가는 듯하였다
 『아이고 이것봐요 아적도 시드러지지만은것을 누가내버렸구려 일년동안
 이나두고 / 애를써서 겨우필야고하는것을 그만씩거바렸서요 이왕씩것
 거든 차라리 바리지나 마릿스면...』
 영자는 사랑의말에 비로소 내정신이돌아 고개를도로키니 한사오잔박게
 서 사라가씩거버린뜻가지하나를 주어들고서있다
 『참말 아직도생생한것을 내버렸구려...』
 영자는 (네신세도 참말불상하구나) 하는듯한눈으로 씻가지를바라보며 대
 답한다

갓흔학년 갓흔괴숙사에서 더욱갓흔방에서 사년간이나갓치지내온 박사라
 (朴士羅)와 리영자(李英子)는 어니듯 아모것도숨길것업는 다정한벗이되
 었더라 그썸안이라 현재당하고잇는운명도 었던점에들어서는 서로갓흔곳
 이적지안엿다
 X X X
 이봄에 갓치나오게된졸업생은 스물두사람이다
 X X X
 여러학생들은 졸업식이뜻나기만 고대 / 하고잇다가 지난토요일날식이뜻

失戀의 淚

나니사 시각이밤부다는듯이 행장을차려가지고 제각금 다정한고향으로호
 터저가게되엿다

『언이 이번헤지면 언제나 다시만나보게될가요?』
 『참 언제나다시만나볼가...』
 『우리는 이젠 이갓흔자미스려운생활을 다시는못하여보겠지요?』
 『참말그래요 아모리신선한생활이라도 한번 탁지내치고보면 그래도모든
 것이 다시금다정한듯하여지는구려』
 『언이 이럿케헤여저도 편지는잇지말어주세요』
 『암 그야다시할말이야요 우리는 남자와달나 암만해도 자유로나들지못
 할터이니 편지밧게야 서로주고받고할것이 무엇잇소』
 여러학생들은 집에돌아가김봄보다도 서로떠나는슬픔이압홀서서 맑곳 /
 한눈에는 눈물이 그렁 / 그렁하여진다
 절집든해발도 지평선(地平線)아래로사라져버리고 단지남은빛만 떠나가는
 구름을 복사썸빛갓치 곱게물들인다 저문빛에썸여들어가는 학교모양을초
 창한기색으로 각금 / 돌아다보며 여러처녀들의 희미한그림자는 교문박
 그로 사라져버린다
 텅 / 비여잇는운동장에는 버레하나날지안이하여 죽은듯이 고요하고 오적영창

애 유리조각만 복사빛갓치 고흔구름의 빗치여 더욱더욱 붉어 짙은데 다
정한여러동모를 보내고 돌아오는 두치녀는 돌아갈생각도이저버리고 사드
러저가는 뿔가지만 정진업사 들여다보고서있다

一…………二

우슴으로 채워잇는 S 학교의속사도 지금은 단지사감외에는 사오인의학
생이 머물너잇슬뿐이요 낮이나밤이나 잠든듯이 고요하되 그중에도 세사
람은 미구에 떠날터이나 단지사정에의지하여 수삼일 머무름에 지내지 못하
고 오직사라와 영자만 오는재학의부러시작되는연구과에서 더한층배우기위
하야 적々한의속사에 외로이며무르게되였다

지성잇는 김영철(金永哲) | 영자의죽은 형에남편에게 신세를세치고잇는
영자는 흑시의신할바이업스나 히주서도 굴지하난부명을듯난 실업가바용
석(朴容錫)의의달로져 히가박귀도록 근친도하지안코 쓸々한의속사에머물
너잇다하면 누구나듯난사람다다 이상하게싱각하지안을수업다 『사라는왜집
에도가지안니?』 하고 흑시엇던동모가 물을것갓흐면 그럴씩마다 사라난
단지아름다운눈으로 영자를바라보며 웃슬뿐이요 아모티답도업시지너버리
고만다

의속사뒤편에난 송림재이로 은은이뵈이난푸른담요를 쌀아노은듯한잔디밭

이있다 그잔디밭은 이두치녀의 김부개뛰노난뜻일뿐안이라 쌀아서마난은
위안을받난곳이다 | 달갓흔장리를의논도하고 쓰린현지를 (서로위로도하난곳
이다

두치녀난 날마다 이곳에몸을붓치고잇다심히한다 질거운일이잇서도 슬픈
일이잇서도 책을한권읽으리도 무엇을한페이지쓰드리도 | 그들은 이곳을조
금도떠나지안었다

오날도 두치녀난 고 | 나개자란잔디밭우에 나란이여기를겻고안져있다

저우이시가를떠난곳에 푸른빛이속々듯난듯한 숲활노들너써여잇난 S 학교
난 시간의종소리와 독서하난음성과 합창하난소리만업고보면 어너씩
든지 한적한시골에 농가갓치고요하다 머닐이압흐로바라뵈이난 조금안다
리를지나 쉼불 / 한한줄기좁은길은 마즌편산모퉁을돌아 기닐개셋쳐잇난
티 그가역으로들々이써여잇난저근박해난 무뻗이누르게피여있다 썩々로불
어가난연한바람은 유원(幽遠)한런지간에 가득이차잇난청춘에뿔다운향기를
불어다가 두어린치녀의 불그스레한두쌍을살시치고난 다시아지도못할곳으
로 흘러가바리고만다

무릅우에 두손길을시름업사올여뜻코 아름다운봄경치를 황홀이바라보고안
저잇든사라난 저른한숨과갓치입을열어

失戀의 淚

「한세잇든동모들이 모다 후러저가고마니사 학교가갑지기 쓸々하여지난것 갖히요」

「참말그리요 학교가원통해! 하것이 마치고초상이나철으고난집갓히요」

영자난 말뚝을너려다보며 혼자말비웃하게 뒤를이여

「엇저면 그들은그갓치 절겁게돌아갈집을가져슬가...」

두쳐녀난 약속이나한듯시 목어운한숨을 일시에후! 하고쉽다 영자난 사

라가 비! ~ 돌이코잇난폴뚝을 무심이들여다보며 몹시침착하여조로다시 말을시작한다

「그러나 사라 나는 본시복행한사람이니사 이리케지니난것이 조금도이

상한것이업지요만은 사라난 양친이가추게실뿐이안이라 그우에지산도녀

녀하갓다 무엇하나부족한것이업지요?... 암마히도사라난 무슨괴벽하성

질의소유자갓히요 그러기에그렇치 그럿치안으면그럴수야잇나요 부모가

그리기티리시고또...」

「아이고 인정업난소리작々히뒤요 너가가기실여가지안우... 영자사지도

나를그릿케성각하난것을보니 나는참말너머도야속하구려」

사라난 말을마치고 원망한듯한눈으로 머닌남편하날에 피여을나가난

구름뚝(雲花)을 소나무석이로바라본다 영자난 미안하다난듯시 사라의얼

골을들여다보며

「아! 사라노했소 나도사라의마음을모로난것은안애요 그러나 아버지어

머님이 그처럼귀애하사고 또... 아이고누구라고히나 그양반도그릿케나

사랑하여주시난디 사라난조금도 그런마음을받아주난것갓지도안이하니사

말이이요 그럿치안어요?」

「난 물나요 그사지것은...」

사라난 말만히도머리가압흐다난듯시 눈쌀을썩흐린다 그러고난 다시아모

말도하지안코 손에들엇든폴뚝만 땀쌀스럽다는드시 뚝입을하나씩들씩뚝々

짜버린다 폴뚝은 뚝안인그양반이라난사람에게티한 감정으로인연하야 자

괴몸이 부서지난것을슬퍼하며 옷갓치검은 사라의치마자락우흐로 이처러

운듯시 파월! ~ 날어후러진다 영자난 무엇을성각하였난지 이마를썩흐리

며

「참 사라알도씩하지안은것은안이이요 그러나 참된행복은 나를진심으로

사랑하여주난것박게안업서요...」

사라난 영자의압말을듯지안으려고 자기말을중간에간드린다

「원 그런사람을 남편으로섬길바에난 차라리저! 「소」에게로 사집을가

갓소」

失戀의 淚

「하하 저『소』끼로……」
 영자난 허리를지며웃난다 사라난 시침을뚝뚝고있다가도 너머극단으로홀
 너간자괴말에 자괴도우슴을참지못하여 역시하하치고말아웃난다
 이두처녀의입에 오르너리난그『소』라난것은 참으로짐이나싯고 밧이나가
 는소가안이라 학교에서부리난아희의별명이라 그소라난아희난 나히가열오
 륝세나되어 서도지식이라든지모든행동이 단지철팔세된어린아희나조금도달
 을것이업다 그를『소』라고 불으끼된이유는이러하다
 언젠지 비가몹시너리난날오후다 무슨심바람을 식힐일이잇서 그소라난아
 희를 아모리차저보나 형적도업다 그리아마어디를갓나보다……하고말엇난
 티 비도조금뚝치고 천둥도차차적어지니싸 창고복데기속에서 버석어리며
 기어나온다 마침여러학생들이 무지개를바라보고서잇다가 『너거긴뵈려하러들
 어가잇덴니…… 그곳에잇스며 그리차저도딛답이업서』 하고물으니싸 그
 씨까지도별々떨며 『번기가너머도몹시하기무서워서는 그러다또벼락이나마즈
 면……』 하며 하날을힐끔／＼쳐여다본다 그씨마침천둥이우루루하고소리가
 나니싸 고만기겁을하며 악싸나왔든창고속으로뛰여들어간다 여러학생들은
 하도어이가업서 하하치고우스며 『저이에끼난 소갓치든한것박끼난아모것
 도취할것이업서 재는인형을쓴소야』 하고말엇다 그리서지금은 『소』라고하

면 이두처녀뿐안이라 의학교에서 모르난사람이별노업게되였다
 영자난 우슴을진정하고

「사라 그러도처음에난 그양반을그리실여하지난안엇지요?」

「글세요 처음에난별노……」

「그렇다고하면 사라난그양반을 식인세음이안이게서요」

「뭐요? 식이단이요」

사라난 의외의말에놀너기를마지안이하며 혼자속으로 (너가그를씩여……과
 연너가그이를씩였나? 안이다) 나는아직껏그사람을식인일은업다 지금내
 가그사람을사랑하지안는다하여도……실상은 부모께서자의로하신일이니싸 이
 갓치자문자답하며 무릅우에호러진싯 입을주어 손바닥으로 싸붙질을하다가다
 시고리를돌이키며

「영자 나는 그사람을식인일이라고난조금도업서요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그사람이 어려슬씩 우리아버지가 의지업슴을가공이여겨 우리집으로디
 려왔지요 그러서보통학교까지난나와갓치단여서요 그후그사람은 자기
 자원하여 우리집에서경영하난 직조공장을감독하게되였서요 그사람은과
 연영이한사람이애요 모든일을멧심년경험하여온사람보다도 홀용이처리하
 여나가서요 그뿐안이라 염식갓흔것은 성질이본리화학을조합하기씩문에

미우치미를가지고 일상실험을한결과 지금은 세가지빛을띤데서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머니께서난 마음이씩마저서고만... : 지금도 너가
 이러난것은 그사람이 인물이추하다든지 품행이부정하여 그러난것이안
 이라 그저공연이 그사람이실여져요
 사라난손을 다시무릅우에너려노으며 말을다사잇되인다

영자 사람이란것은 수양이엇더할을알아 성질이라든지 사상이아조편
 관으로변한것이안이겠서요 아모리천치라도 교육여하를알아용모까지도
 변한다고하난뒤... : 너가 지금와서 새삼스럽게그사람이실타난것이안이
 처음부터라도 그사람을좃타고한것은안이이요 그런것을 영자난부도덕이
 니 사람을씩이나이하니 흥들이말하자면 영자가니속을자세히모르난사담
 이지요』

고요히듯고잇든 영자난급히말을간드린다

『안이애요 그것게생각할것이안이이라 사람갓치생각하면 그도그럴듯하지안
 은것은안이애요 그러나인정상으로보면 잇때까지밋고잇든 그냥반에게대
 하야 너머도미안하지안어요 또다시돌이키여생각하면 그양반은사람을기
 피밋고잇뎠난대 지금와서이러니저러니하시라 결코말하자면그양반은사
 라에게속은셈이안이겠서요 그양반은 고만나심이되지안케서요』

『그는 그럴지도몰나요 그러나그렇라고 내일생을사랑하지도안난사람에게
 희생하여바리난것은 암만해도 마음이내여키이지안어요 그래도 상현씨
 가좀.....』

사라난 마쳐어린애가 진저리나치난득기 몸을가비열게한번떨며 말을멈치
 고만다 너머도 자기마음이흥분되어 땀에도생각하기실든 그사나히의일흔
 을부지중에말한사담인듯하다 사라의눈에난 원근몸에물감칠을을긋볼곳하게
 하고 귀게소리가요란한가운데서 여러직공들을 지휘하고잇난 상현의얼굴
 이되이난듯되이난듯하며 마쳐드러운 물건이나본듯이 눈쌀을잔뜩쥘흐린다
 영자난 사라에심중을찌뚫어보난듯이 고요히웃으며

『오!라 상현씨라고했지... : 결국말하자면 상현씨난이전상현씨대로 그저잇
 스나 사라난이전사라가안이니까 그런양반은 마음에맞지안난단말이지요?』
 『뭐! 그러난것이안이이라 그저공연이실여저난것을 내니엇더케해요 참
 말그런사람하고 일생을갓치지내면 말도모르난 외국사람하고 결혼하
 것이나질것이뭐예요 자미스리게말한마대도못하고... : 참내언젠가 아버지
 께 께를쓰다십히하며 「즈!」그렇게 상현씨가마음에드시거든 고만양자
 로나정하지지요」헛드니 아버지난아모말삼도하지안이하시겠지요 그
 상현씨에게 그런뜻을빋치여보앗드니... :』

失戀의 淚

영자난 일종호괴심에 설이여 사라가 말도 못치기전에 채쳐들어 본다
 『그래 상현씨가 뭘시라고 대답해요?』
 『그러이까 롱담비슷하게 웃고말어요 그리고 나들……』
 사라난 그런사나희게 사랑의 말을듯난것까지도 더럽다난듯시 몸을두어변
 혼들고나서 말뱃을흐리며버리고만다

『그러면 상현씨난 사라을급히사랑하사난구려』
 『……………』
 사라난 아모대답도업다

영자난 고요히생각해본다 (사라난 학교안에서도 뛰어나난미인일뿐안이라
 이변졸업성적도 매우조왔는데……이러한용모와재질노 겨우 보통학교밖에
 못치지못한 상현씨에안해가된다난것은 참말악갑다 사라가그리시려할도무
 리난안이다 닭을봉에게줍이나 무엇이달르라) 영자난 자기생각이글치안타
 는듯시 혼자머리를뺏뺏뺏한다
 영자도 역시아직것나이가어린척녀다 그보다도 세상일에난아모경험도업난
 어린애다 아모리사라보다난 좀침착한듯하여도 이세상일을판단하기에난너
 모도못치이얕는다 그뿐안이라 절문녀자들이 혼이가지기쉬운허영의그림자
 가 영자의가삼에도 썩리를박고있다 그리기때문에 누구누구하난멧々사람

失戀의 淚

외에난 자기들에 올흔편에날사람은별노업다고생각한다 그래서 상현의인
 격이엇던지 실역이엇던지난생각할여가도업시 혼이돌아단이난 견장평인법
 (肩章評人法)에의지하여 「겨우보통학교밖에맞치못하얏스니까」 하며손쉽게
 단안(斷案)을내리고말었다

『아모리 부모가그리워도 그사람이장가를들기까지난 도모지집에가지안을
 터이애요 그러면 자기도생각이잇슬터이니사 다른곳에서 안해를마자을
 터이지요』
 사라난자기 의견이올치안으나하난듯한 눈으로 영자에얼굴을치여다보며말
 한다

『그래도 그럴이난업겠지요』
 영자난 적으나 힘있게대답한다 그난자기와갓튼처제에잇난 상현이가 새
 삼스롭게 불상하게생각되난까닭인듯하다 그리고난 혼자말비슷하게말을이여
 자기를 시려하난사람처럼 한층더잇치기 어려운것은업난법이된다』
 영자난 잠시잇쳐든 사라보다도한층더쓰린 자기의괴로움이 외——문을열
 허누르난듯하여 본래부터라도 철색이적은 영자의얼굴은 한층더햇썩하여
 진다 그리고난 무엇을생각하난지 고개를숙으리고 안져있다

失戀의 淚

영자에 깨난 김인환(金仁煥)이란 애인이 있섯다 그 사람은 간해봄에 고등
 상업학교를 맞치고 나서 지금은 푸은행사무원으로 잇다 나히난금년시물제살되
 난 청년인대 조금경박한듯하나 그대신비상히총명한사람이다
 그럭케도침중한 영자가엇지하여 이갓흔청년을 사랑하였느냐하면 아모리
 그를사랑하난 영자자신이라도 아마그싸닭은아지못한다고할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남녀간의애정이라난것은 뜻안인곳에서 일어난다고박게난 더생각
 할수업다 더욱이 나이가차지못한청년남녀난 한참이성의사랑을요구할때이
 기때문에 과히홍한결점만업고보면 그저덤허듯코 맹목적으로 사랑해버리
 고만다—어느결에 상대자의가삼속에깊히감추여잇난 결점을차자낼들이잇
 스라 그썩안이라 절영그결점을차자낸다하드라도 구태여들추어내이지안이
 하고 그대로서로용서하여버람이상예다 인생에제일위험할때을당한 영자도
 역시인환이를깊히김히달어보지도못하고 자기도모르난틈에우연이사랑하게되
 엿다—그러나 그사람의경박함을모름은안이여섯다—이두남녀가서로사랑하게
 된동기(動機)난 우연한일이나 혼이만은일이다

각학교에서난 더위로인연하여 업을쉬게된 엿던느진여름저역이다
 변화만흔여름구름은 누웠다가북엇다가다시진한자주빛으로변해야간다 처음

失戀의 淚

에난 다라나난삼살개갓든구름도 빗이점점김치가난대로 허리가차차로느러
 나며 열이점점떨나져서 고만죽제비모양으로변하드니 마참내크니구렁이갓
 처되어 시각으로어두어가난하날구멍(天穴)으로들어가버리고만다
 저역을맞치고난 여름사람들은 마당에목기불을듯코들나안져서 하루더위를
 다잇쳐바리라난듯서 절겁게웃고 이야기하고잇다 영자도 저역을맞치고나
 서 단지붓채하개만가지고 좌우로몰여드난모기떼를방비하며 하나식들식났
 하나난 반짝이난별들을헤이고서잇다 겨우담한나재둔 영자와인환의집은그
 나마도 우물물을갓치쓰기위하여서 터바리고 맞치한집이나달음업시내왕하
 고지낸다 인환이도역시저역을먹고나서 후원에잇난 조금안채전새이로몸을
 건일고잇다
 날이차차저무려감을떨아 담에기여올은 박뿔만점점희여간다 이두남녀난누
 가소리대이난듯시 점점각싸와져서 마참내 두시선(視線)우마주치고야말엇
 다 그래서 그 에난마치음양전이 서로총돌되난듯시 한무슨맑은빛이났타
 나게되엿다

『매우 더운일기을시다』
 인환은 공손이머리를숙이며 인사하엿다
 『네— 참말씨난듯한날이을시다』

失戀의 淚

영자도 역시머리를숙이며 답례하였다

『어디날쫓겨 떠나시겠습니까?』

『이심구일날쫓거나 가랴합이다』

『그러면 저하고 갖쳐 떠나시게 되겠습니까』

어디듯 두사람은 두어 자격『隔』하여서있다 영자난 인환의손에들여잇난박

싹을들여다보며

『아니고 께은새싹합니다』

『네! 참말새싹함이다 그런데 영자씨난 청년회관에가지지안어요?』

『저도 가봐야게서요』

『그러면 갖치가시지요 시간도거진다되었는데요』

두남녀난 서늘한저녁공기를마시며 이리저리건일고있다

이날저녁에 열인개성유학생친목회에서개최한 하리강연회난 매우조흔결과

을엇었다 그중에도 인환에『우리의경제에절박』과 영자의『우리녀자의압

길』은여러청중에깊은인상을주엇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적으로환영을받

었다 강연이과한뒤에 두남녀난 그리밝지도못한 고요한길을거리가면서이

사회난 극도로부패하였느니 이사회를개량할사람은 우리들밖에난업느니하

며 조금아치들어잇난불편까지 툭툭덜어바리며 자괴들이생각해봐도괴절을

失戀의 淚

할만치 극도로홍분되어 배운것 들은것할것업서 모조리싹아노았다 그래
도 그중에서로 공동되난점이잇서 두남녀난학교를맞친뒤에난 손을마조잡
고사회를위하야일해나아가자고 약속까지하게되었다 밋천짜른사회지식이다
하여지라하니싸 그들에화제(話題)난 차차로사회를떠나 점점가정으로움기
여졌다

『영자씨 우리사회에모든것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우리가정을자

를개량할필요가잇지안어요?』

『참말그래요 우리난가정부러자 를개량하야하겠서요』

지금은 악싸쳐음맛날때갖흔수점은괴색은 조금도업고 서로웃고 손짓도하

여가며 자미잇게이야이한다 그러노라니싸 자연결혼문제가살어나왔다 그

들은한거름 두거름음기여갈사록 말하여가난범위도 점점좁아져서 마침내

자괴들도 놀내리만큼아조각갑게 귀착되고말었다

두사람은 무엇의미함인지 서로바라보며 우섯다

이러하여 영자와 인환이새이새로듯은사랑의씩은 날이갈사록점점자라기

시작하였다

X

X

X

영자난 지금 사라와갖쳐 잔디밭에안져 이야이하고잇든것도 이저바리고

물갓치 단 사랑의 지나가 페이지를 뒤적거리며 마치고 켜나 그리난 듯 사자 미스 럽게 생각하였든 부분만 따서 정신업시 읽어 보고 안저 있다 | 차창에 경치 달밤에 산보 물가의 휴식 불갓흔 키스 재릿한 사랑 | 영자난이 갓흔 모든 과거의 풋김 에 정신을 빼앗기고 황홀히 안저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갓치도 열열하든 애인에 사랑은 장차 이름 갓치 식으라고 한다 | 안이 벌서 식었난지도 알수업다 그래서 영자에 모든 단 씹은 빼여 지라고 한다 요 재에 인환이 난 이전에 인환이 갓치 피가 얼코 맥박이 뛰놀든 인환이 난 안인 듯 하 다 영자난 간주일에 부친편지가 부전이 붓터 돌아 온 것을 생각하고 외근 몸을 한번 부르르 썩는다 마침바람결을 따라 누른 나뭇잎이 서로 휘둥그러져서 근두 (筋斗)를 치며 정신업시 안저잇난 영자의 머리를 빗치고 지내간다 영자난 곱흔 한숨을 남모르게 쉬며 (가련한 인생은 너의 들만도 못하고 나...) 하며 부러운 듯 시바라 본다 사라도 눈머느니 안저잇다가 치마 자락을 툭스덜며 이르난다 압 서붓히 웃어버렸든 하 | 안 웃입은 뭍을 도난 듯 사 팽팽 돌아 푸른 잔디밭우에 호 터진다 영자도 썰아 읽어 서며

『못처럼 주는 것을 그럭케 웃어 버린 단 말이 애요 책상우에라도 썩자 들겼...』
『하! 하! 그럭치만 암오래도 말나 버리고 말 것이 안이 겹서요 차라리 내 손으 로 웃어 버리 난 것이 내게 든지 제게 든지 그대로 말나 버리 난 편보다 낫지요 저

것 봐요 섯과 잔잔티우에 하 | 앓개 호터 전 것이 더욱 아롭다 위 꺾이지 안어요?』
사라난 치마 자락으로 웃입을 활활 날이며 웃난다 어대 로 보든지 사라에 게 난 활활한 기운이 감초여 잇서서 영자 갓치 일상 침묵으로 만지 내지 안는다

『자 | 인제 난 고만 돌아 가지요』

사라난 머니 건이 서잇난 영자를 잡아 다리며 이럭케 말했다 영자 난 사라 하자 난대로 아모 말도 업시 그대 로 뒤만 썰아 걸어 간다

주니 마 주달여 잇난 교실을 향하여 잔디밭우호로 심여 잔이 나 걸어가면 여 러 웃 갓흔 처녀에 손에 각구여 지 난 적도 크도 안은 회원이 하나 잇다 두 처녀 난 어 녀 듯 그 회원가에 다다 랐다 각색 웃 들은 기우러져 가 난 해 빛을 받아 더욱 선연 하여 보 인다 두 처녀 난 웃발사이에 잇난 좁은 길을 지내여 가 기위하여 맞치 변얼호령(變列號令)이나 내 린 듯 사 사라 난 압호로 가고 영자 난 뒤으로 썰어져서 이 털이 금세 일렬로 변하였다

말 업시 썰아가 든 영자 난 입을 열어

『사라 나 난 가정교사가 되라 난대 엇디 할 싸요 당장에라도 호구 할 길 이 망 연하니...』

『가정교사요? 조 켜 지요』
사라난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한다 이것은 사라가 무엇을 좀 생각 하 라 면 언제

失戀의 淚

든지하난버릇이다
 『그래서 일전오선생님제엿주어보았지요 될수잇난대로 한곳엇어볼터이니
 영여말나고난하십데다만은...:헨길 나갓혼자에게 그런곳이생길리가잇슬
 나구요

영자난 더욱실심되난듯한 어조로 뒤를잇대여
 그리고 지금은졸업이랍시고하였스니 이제난제손으로 좀살아가바야지요
 『엔제사지든지 영철씨에게 신세만끼치고잇슬수야잇서요』
 『참말 영자에게난 나보다도또한가지 괴로운문제가잇구려 그갓혼것은영
 여하시지말어요 그러치안어도일상침을한빛만나타나는데...:피차에헨자라
 난대로도와가지요』
 영자난 너모도곰아와서 아모말도이루지못하고 사라의손만썩쥐인다 두쳐
 녀에마음과마음은단단이결합(結合)되였다 두손은다시한번헨잇게쥐여진다
 이두쳐녀난 다갓치금년 열아홉번재의봄을마졌스나 사라난나보다도더
 여되어난대신에 영자난이삼년이나 더먹어되어난듯하여 그의얼굴에난지내
 여간 모든고초의흔적이일일이남어있다 사라난누나갓치헨로방초겹조고리를
 소매를조곰것어입엇난대 우유빛갓치고흔팔이 반이나들어난다 연한팔목과
 토실토실한손가락에난 자괴아버지가사주사고잔 금시계와진주반지가느짚사

失戀의 淚

씨위잇다 국도가느도안코 호리호리한허리에난 무릅이들어난듯시썰분후색
 천원쥬치마를갓낫게입고 살이들여다되어도록얇분 스타킹아태난눈이부시
 도록빛나는 자색단화가진겨잇다 학생에차림차리로난 너모사치한데갓가와
 뵈인다 일로만보와도 사라에집안이얼마나 유여하것이라든지 또난부모가
 얼마나귀애하난지를 가히밀우위할수잇다 웃을때마다옴폭옴폭들이가난혈색
 조흔뺨이라든지 바람결에나비씨난웃갓치건은 머리털이라든지 아모리뜻어
 보아도흠잡을곳업난미인이다 더욱가을물결갓치맑고도 조곰큰듯어글어글
 한눈에난 쌍사풀진알분부가죽밋흐로알수업난 무슨마력(魔力)이흘너넘친다
 사라에게난 이눈한아로만도 미인이라난일흔을듯기에너너하다 그와반대로
 영자난겨우몸을가린 옥양목의복조차도 발서졸음이잡히고 열분째사지을낫
 다 그리풍부치도못하고 창백한얼굴은 의복이화려하지못함을썰아 한층더
 어두어뵈인다 그러나그얼굴에난 맞치못할비이와 건드리기어려운곳은결심
 이 온은한가운대 낮하나뵈이다
 만일사라를 아차해벼헤웃고잇난 백합화(百合花)라고하면 영자난그늘밋헤
 서겨우피어나오난 백일홍(百日紅)이라고갓게비길수업다 한편은싸뜻하괴운
 이가득하나 한편은싸늘한빛만가득하고 한편은밝으나 한편은어둡다
 그리길든해도 차차기우려져서 사라의팔목에 걸여잇난 시계의시침은 발

서Ⅲ와Ⅴ 재이를 가르친다 두 처녀난가는 발길도 멈추고 저들라고 하난해빛을 밟아 방긱방긱 웃고잇난 싹포기에 정신을 잃코 아모말도 업시서잇다 마침나이가 열오륙세가량이 나되어 뵈이난 학생하나가 급히 뛰여오드니 철덕어리난가삼을게우진정하며

「사라씨를 나는 피차쳐돌아댄겨서요 아이고숨차……」

「웨요 우리난산보가든길안대요 무슨급한일이생겨서요?」

「오날은 사라씨하고 순히씨두분이취사당번이안이애요?」

그런대 희순씨

「나발서부터혼자서 씬을홀이며……」

어린학생은 숨이차서말을 맞치지못하고만다

「아이참! 씬씩이젓네 공연이숙사만수고를식엿구려자! 그러면어서가요!」

사라난 헤를치며웃고말을맞치고나서 두사람의손을하나식죄다 세처녀난손

목을마주잡고걸어가며 「박학도되고일기도싸뜻하여 고만마음이탁풀어져서먹

을것싸지도잇쳤네!」 하며 우슴반말만으로짖거리며 괴숙사부억으로향하여달

음질한다

갓당에서는 누가치난지 피아노소래가곰게홀어나온다

고요한봄 저문공과 난잔잔한물결를지여 싹칠듯싹칠듯한애처러운음파(音波)를시러다가 소매를

것고무엇을씻난다 싹를인다하며 북적어리난부억을지내쳐 다시머린공중으로호호저바린다

「경희처럼 피아노조아하난애난 다시업슬러이야 그저는만설어지면피아노

……내우서워서 언젠가「너는피아노는 그릿게공부하야무엇하련?」하

고물엇드니만 그대답이야조절창이야 「달은밝고 잠은안오고하면 혼자가만

이일어나서 피아노를치지안겠니 그러면저! 마이스윗르하! 르가눈을슬그

머!」이쁘고 「정희씨아직셋도치지안소!」하겟지 그러면그녀나는「잠이와야

자지요 우리산보나아가요!」하고 들이서손목을마주잡고 고요한달빛아

래로이리저리건일며……하면오죽이나즐겁겠니 그래서나는 이피아노를이

갓치배운다!」하겟지요 그래서엇지나우서운지 두리서한참동안이나 허리

를못펴고우섯서요……참그러면 자미난잇슬설 하! 하!

사라난 한편으로난 피아노소리를들으며 또한편으로난 이것치말하고웃난

다 영자도쌀아우스며 「개난 잇다금우서운소래도잘하드라 참말 경희난 성질이꽤활한애야!」

사정업난봄빛은 외근누리가득하다! 어두운곳에도 밝은곳에도 변화한가

정에도 쓸쓸한오막사리에도 질거운사람에게도 슬픈사람에게도

영자도 모든근심 모든슬픔다잇치고 보기들은화려한우슴빛을씩워잇다

고요한전등아래서 저녀를막팔하고난 여러처녀들은 다갓치우즈며질겁게이 야기하고있다 고요한밤빛은점々깊혀가고 어린처녀들에 고희우슴소래만조 금열어노은창틀이재여 열부희색빛장막에 휘싸여훑터져바린다

二.....

『아! 얘가오날도오지안난게구려!』

용석은 저녀상을물이고나서 죽기주머니에서 담배를끄내이려다가 박그로 들어오난 나이나한사십되어보이난부인을보고 말을건넌다

용석은 나이가오십이나되난 중늙은이나 피부가윤락할이라든지 동지가활 발할이라든지 아직삼십내외에절문사람이나 조금도다름이없셔되인다

『글세요 개가원일이짜요 암만해도자식은 부모가자식을생각하난것갓치그 라클를하지난안는게애요 그래도만분지일이라도 그런생각이잇스면 이번 에도이갓치느린거리고잇겟서요 발서내려왔지...:..:간변동과방학때도오지안

엇난대요』 부인은말을맛치고 제집하인을부르더니 저녀상을물이라고일으고나서난 바 느질고리를당기여 사라가내려오면입히겟다고 새로말은웃감을손에든다 나

이란비록만으나 열골에난아죽도절머슬때에 곱든자래가남어있다 맑은눈결 이라든지 옷독하코날이라든지 우슬때마다볼이쑥々들어남이라든지 사라를

씩그대로본떠다노은듯하다

『그래 요새난편지도업소?』

용석은담배를 재터리에걸어노흐며 또한번물어본다

『간주임목요일날한번오고난 다시아모소식도업서요』

부인은이갓치간단이대답하고나서난 다시또무슨말이나하지안으려나하고남 편에얼골만치어다보고안저있다 용석은아모말도업시 재터라에서섞볼섞볼피

여올나가다가 두어자나되난곳에서 두갈대로갈이여훑혀져바리난 담배연기 만바라보고 무엇을생각하난듯시 묵묵히안저있다 적은듯하여용석은다시입

을열어

『그러면 그편지에무엇이라고 하얏습디까?』

『뭐! 별말은업고요 그저문안한뒤에 일간졸업식을하겟다고하여야요 읽어 보시지요』

부인은말을맛치며 가비엿게몸을일어 경대압헤노여잇든 사라의편지를집어 다가가 남편에압헤갓다는는다 용석은담배를다시집어입에물며 처전에걸어잇

난전등을한번치여다보더니 아모말도업시그래로 편지를씹아 읽기시작한다 부인도역시 아모말도하지안코 남편에편지읽난소래만 듯고안저있다

.....:..:저는 어마남생각이재삼스럽게나기시작함이다 그래서그붓을

들게 되었습시다. 밤은 벌써 깊혀져서 희미하든 달빛조차도 살아지고 영자도 곤하게 잠이 들어 외- 방안은 고적하기라 달 데 업습니다. 평사라 서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나지 안겠짜 오리 짜만은 그리지 절하든 학년 시험도 잔월요일날 맞치고 내일이면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니 짜 갖치 잇난 동모들은 짐을 싸다 선물을 사드린 다하며 요새 난의 숙사가 떠나가 난 듯 하외다. 그러 잇싸 어머니 아버님을 사모 하난 마음도 하층 더 잔절 하여 지나 니다. 그래서 잠이나 들어 잇치리라 하고 들어 누엇스나 암만 해도 잠은 오지 안코 (나는 이 갖치도 그리운 집에를 왜 가지 못하나 동모들이 집 곁에 돌아 가난. 그 갖흔 집에 내게 도 잇스면서...) 하난 생각이 나며 공연이 마음이 슬어져서 이불 속에서 혼자는 돌싸지도 흘었나이다.

용석은 읽기를 맞치고 혼자 말 갖치

「그렇게 오고 십흔대 웨- 오지 안코 잇때것 우물거리고 잇슬 짜?」

「달내 그러 나요. 개난 상현이 떼문에 그래요. 그러 치안 으면 벌써 왓슬 러인대 : : : 참말 사라의 일은 엇지 하면 조와요」

「뭘 엇더 케한 단 말이 애요. 이전에 내게도 그런 말을 합디 다만은 : : : 다른 것은 후 시 모르나. 사람 알아 보 난대 들어서야 내가 저만 못하겠소」

「그래도 개가 일향고 짐을 세우니 짜 엇지 합니 짜. 다른 일 것지 안아. 혼인 갖치 중

한 일을 제승나도 업시 할수 난 업고 : : :」

용석도 사실이 싹하여 아모 말도 하지 안코. 그 대로 편지만 잇대 여 읽는다.

그럴 때 마다 집으로 한 다름에 쫓여 가고 심혀져요. 그러다가 도무척 : : :

: : : 어머니 저난 올애 새로 시작되 난 연구과라 난 데서 일년만 더 배우게

서요. 아버지 제도. 그러케 자- 르 말삼 하여 주세요.

볼일과 난 날로. 화창 하야 가 올 난대. 때를 쌀아

어머님. 아버님과 후안령하기 만 비옵나이다.

삼월이 십일일

불효녀 사라 상서

읽기를 마친 용석은 편지를 척척 접어 다시 봉투에 너으며

「허허. 요새 난 글씨가 매우 늘 잇난 걸 : : :」

용석은 사랑스러운 드시 봉투를 하 번 다 사들여 다 보며 웃난다. 부인은 더 저주난

편지를 받아 바느질 고리에 너으며 역시 우습을 썩우고 썩여 노앗든 마늘을 씹으

며 손톱으로 주름살을 편다.

용석은 비록 이번 혼인에 대하여 그 갖치 자괴 주견 만 세우나 본래부터 성질이 그

갖흔 사람 은 안이다. 더욱 구식 가정에 혼이 잇는 손자나 보려고 하는 마음 갖흔 것은

조금도 업다. 자괴는 상현의 인격을 확실히 잇는 짜 닭에 보통 잇는 부모 모 표준(父母

標準)보다도 한층더 나아가 당사본위(當者本位)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은 아지도 못하고 단지 자기주권만 세우고 내러오지도 안이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간하여서는 내려오지 안올터이니 오래간만에 서울도 구경할겸 내일부인이 올나가서 잘달내여더리고 내려오시구려 제가그리배우겟다는것을 고만두라고야 할이야잇소 그러치안어도 배우라고 초달절도 할터인데...」
「그는그래요 그러나 나는 집안일이 많아서 오직할수도 업스니 당신이올나가시구려」

「내가 가면 쫓겠스나 상점에일이 많아서 어디떠날수가잇소 다른때갓흐면 상현이더러 상점일까지도 썬쳐보살피라고하겠지만 요새는 염색법을 실험하노라고 저도 밧버그리는대 그러케하라고 할수도 업고」

「그럼 내가지지요」

부인은 사랑하는 딸을 만나보기위하야 집안일도 다 제쳐놋코 남편에 말대로 자기가 떠나기로 하였다

사라의 아버지는 재사상을 조금마신사람이라 그래서 남녀평등이니 인격중요이니 하는것도 대강은 안다 그러나 그것은 급진(急進)에 지나지 못하기때문에 이전부터 전해나려오는 남존여비(男尊女卑)에 눌여바리고 말아서 입으로

는 말하면서도 모든것을 자기부인에게는 별노의논하지안이하고 자기 혼자서 처단하여 버리고 말아왔다 그러나 이번은 인문제에 들어서서 모든일을 전부부인에게 책임지지우다 심히한다 그는 그러케하지안으래도 안을수업는일이여섯다 그사담은 다름이안이다 아모리 똑갓흔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한층더갓가울썬안이라 똑갓흔부모의말이라도 아버지의말은너머 엄숙한맛이 많아서 어머니의말갓치 김피김피늦기여들어가는 힘이 부족하다 더욱이 여자에게드러서는 그것이 남자보다도 한층심하다 그썬안이라 아버지의 교훈은 무단적기분(武斷的氣分)이 많아서 일시에 지내지 못하는대신에 어머니의 교훈은 문화적기분(文化的氣分)이 많아서 영원히 계속할수가잇다 만일 사라가 자기말에어려워 상현이하고 결혼을한다하면 비단당자의압길이 불행하여질썬안이라 한가정에 화기도 손상되고 말것이다 그러면그렇라고 그대로내버려두면 혈기미정(血氣未定)한때에 엇던일이생길는지도 밀이해아틸수는업는것이다 그래서이리저리고심한결과 이번일에 들어서서는 전권(全權)을 부인에게손에다맡기다 심히하고 자기는 그뒤에안저서 부인을지휘하여가며 사라가마음으로 김버승낙하도록만들여나는것이여섯다

「모든일은 부인이자」되도록하시구려 나는아모리말해도듣지를안으니...
그래도달은알갓흐면 혹시왕이여서라도 하겠지만 혼인은제일생의 그중중

대한일인대……」

부인은행구를수습한다 하인에게집안일을당부한다 한참분주하든차에 남편의말을듯고 얼골을조금썩흐리며

「글세일상 나보고만되도록하라고하시니 내가엇더케한단말이애요 이번에대리고내려오거든 당신이잘말삼하시구려」

「그는그렇다하고 사라가무삼싸닭으로 상현이를실여하는지 부인은혹시알으시우?」

「내니알수잇서요 아마학식이만치못하다는싸닭이겟죠」

「학식이부족해서요? 내생각갓해서는 사라가상현이에반절도쌀아가지못할줄노아오 더욱화갓흔것은말할것도업지만……」

아모리뚝갓치 부모되기는일반이나 사라를짜가말하니싸 귀에거슬여 부인은아모대답도하지안코있다가 문득무엇이생각난듯시 우스며

「이런말을하면「너괜네라는것은할수가업서」하며 우스시겟지만 사라가그리는것도 그다지남을할수는업서요 왜—언젠가 깨고서울갓든일이잇지안어요 그때사라가무엇을사먹는다고해서 식당찬지로쌀어갓드니 마침엇던서양사람하나가 혼자안고있다가 우리가드러가니싸 헤썩부라진소래로무엇이라고한참이약이해요 그러니싸사라도 뚝갓흔소리로무엇이라고한

참이나대답을해도 그때그서양사람은 연해우서가며고개를뚝뚝해드니일흔도몰으는 음식을만이사서 나도아주잘먹잇는걸이요 내종알어보니싸처음으로 조선오는서양사람이라든가요 이것만보아도 상현이가아모리학식이만타하면 서양말갓흔것을할줄알어요」

부인은말을맛치고나서「자—이갓과봐도 사라가낫지안으나—」하는듯시웃는다

「그럼상현이는 영어를못해그렇다고하니 엇던사람이래야마음에들겟노……」

「아마 목사쯤이나되면 사라도실라고는하지안겟지요」

「하하 목사하는 다홍홍한사람인줄아시오」

「그럼은이요 은애오라버니를보세요 모다칭찬들하지안어요」

「하! 하! 박사말이구려 나는참말목사말이라고 그는그렇다하고 박사면물논학식은충분하지요 그러나학식만잇스면 부인은인격싸지도홍홍한줄아시우 요얼마전일만보아도 상당한대학을맛친사람이 살인한일싸지도잇담니다 그사람이학식이업서그러하겠소 그러기에인격과학식이라는것은 딴문제야요 학식은좀볼절도버 인격이고상한사람이래야 사람다운사람이지요 그싸지학식은암만잇서도 인격이업고보면 되리여두가지다업는편이낫지

요 그런사람에게 학식이잇스면 좃치 못한일을하는대도음이나되지 자기에
 게야하나나 무슨 유익이잇서야지요」
 용석은 말을맛치며 쉼々웃는다 부인도쌀아우스며
 『오—참 박사라고하드라』
 용석은 다시진중한어조로

『오재 소위유지니 신사니하는사람들은 다그렇타는것은안이나 너머도경
 박하여 어디사람다운사람이하나나잇습디까』
 『참말그래요 글노보면 상현이가흔사람은또다시업서요 상현이를공부나좀
 더식여스면...』

『글세 그도올은말이요』
 두사람은 다시는암오말도업시 제각금무엇을생각하는지 머글건이안저있다
 마침문이고요히열리며 상현이가들어온다

『지금막돌아오는길이올시다』
 『오— 상현이나 잘단겨왔니 그재매우고생되었겟구나』
 『안이올시다 종시 라고단이는대고생이무슨고생이되었습니까』
 『그래도피곤하겠네 라기는엇던편으로보아서더곤하데』
 이번은 부인이자괴경험으로말한다 부인은 자괴가서울갈때 몹시피곤하든

것을생각해보며 게집하인을불너 저녁밥을가져오라고일은다
 『안이올시다 배에서먹고왔드니 별노생각이업습니다』
 『그래도좀먹어야지 한번먹으면일상결여잇나』
 부인은 말을맛치고 박그로나아가며 다시하인을불너 한번더재촉한다

『이번일은 다무사히되었니?』
 『네— 우선회사와교섭하여 침수된것은 전부배상하여 밧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중에서일이좀결이기 그재서울로가서 지점에도들너왔습니다
 그러자 게집하인이 밥상을가지고들어와서 말은허리를잡이고말었다 상현
 은 밥상을밧으며 다시말을이여

그래서 심여일이나묵어잇게되여 볼일은별노업고 하도심々하든차에마침
 검정시험이시작되기에 파적결철우어보왔드니 요행입격이되었습니다』
 『그만거야안되겟니 그야철우기전에밀이알고잇는것인데...』

『검정시험이라는게 무엇이애요?』
 이번은 부인이남편을바라보며물었다
 『저렇게 상현이와갓치학교에도가지안코 집에서자습한사람이 자괴학녀의
 인정을밧기위하야 철우는시험인데 그시험에입격이되면 완전한중학교를
 밧천사람이나 똑갓흔자격을잇게되는 것이라오』

失戀의 淚

부인은 머리를 셋덕 셋덕 하며 아사 남편이 하든 말을 생각해 본다
 一……………一
 윤상현(尹尙鉉)은 금년이 십사세의 청년이다 상현은 해주서 조금서편으로 떠
 러져잇는 조금안촌에서 나아가 십삼세 될때까지 부모의 곁은 사랑아래서 아
 | 모일여움도물으고 날마다 날마다 한가한 경치가운데 싸여 질거운 생활을 게
 속해왔다
 그 때에는 조선각 지방에 좀도적이 많이 일어나서 의병(義兵)이라는 훌륭한 일
 흥을 빌어가지고 의병에 명예까지도 들레이며 인민을 괴롭게 한 일이 있다 그 중
 에 도재산이나 좀잇는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심하여 이전 불난서 공포시대(恐怖時
 代) 못지 않게 밤낮 썰고만 지내었다
 상현의 집은 재산도 유여할 썩안이라 더욱 상현이 아버지는 문필과 덕행으로 여
 러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왔다 그런 까닭에 수령하나도 업시 썩 돌아 단
 이든 가의병(假義兵)들은 자괴들의 지휘자가 되어 달라고 날마다 멧사람씩은
 사랑을 썩나지 안이하고 별々 수단을 다 하야 달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여 왔
 스나 청고(淸高)하기로 유명한 상현의 아버지는 조금도 음지기지 안안었다
 그래서 그 흉악한 무리들은 점차 그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하로져 념은 밤이 깊
 혼뒤에 여러도적들은 주인 윤일선(尹一善)을 못드러가고 말었다 그래도 무엇이

失戀의 淚

이 부족한지 그들에 독수(毒手)는 다지가 산에 싸지도 맞쳐서 집안에는 썩러진
 비한개 남기지 안이하고 내중에는 수십간이나 되든 큰 집도 북은 재가운데로 파
 못어버리고 말었다
 그이 혼날 뒤 송림새이에서 유혈이 낭자한 시체를 발견하였난대 그것은 갈
 데엄난 상현의 아버지였다 아모리 어머니는 깨시 다하나 남은 것은 단지 몸뚱
 어리썩이라 엇절술을 몰나 시체만 붓들고 호곡하난외로 운모자의 정상은 엇
 더타형용할여 말할 길이 업섯다 유독 상현의 집에 만이 갓혼 재앙이 이섯다 하면 그
 래도 동리사람들 가운데라도 혹시 구원하여 주난 사람도 잇섯겟지만 그 몸솔독수
 난전 촌락에 밋친 까닭에 그나마도 업섯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단지의로운 두모자
 의 맨손 하나로 철우어버리게 되었다 그해 여름도 그럭저럭 지내여가고 차차 가을
 철이 닥쳐들어 오니 싸 수중에 여간 남아 잇든 돈품도 다 업서지고 당장이라도 남
 의 집에 가서 수고로식 냥을 박구지 안으면 구차하 목숨도 지행하여 갈 길이 바이 업
 시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 난 사랑하난 아달을 위하야 아달은 외로운 어머니를 위
 하야 평생해본 적도 업난 김품도 팔고 목이 터지도록 재도 썩차서 약간 엇난보수
 로 괴로운 세상의 그날그날을 겨우 부지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사람의 일을 썩썩내 저주하난 악마는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노 쇠약하여가
 는 어머니의 몸에 썩에사 모치는 원한과 살을어이든 듯한 슬픔에 목어운 짐을 점々

失戀의 淚

더(加)하다가 그우에 괴로운병까지도 옷장을쳐서마침내 어머니쫓차도의로
 운상현을 거처른세상에혼자남겨두고 머그고머그죽임에나라로 한업시기
 나그네의길을 떠나게되엿드라
 상업상관개로 멸니떠나잇든 박용석의놀남은적지안엿다 이두사람은어리어
 슬때부터 막역한벗이여섯다 차차로장성함을살아 윤일선은한적한경치를조
 아하여 정결한곳에가대를작만하고 은자생활을경영하게되고 박용석은그대
 로 해주시내에머물니 실업에종사하고잇게되여섯다 비로소이일을알게된용
 석은 즉시상현을차져갓드니 그때는외로운모자의지하고 지내가든음막사
 리쫓차도 다른사람에소유로돌아가버리고 고독한상현은 엿던사람의집으로
 가서 머슴사리를하게되여섯다 인사의변천이라는것은 과연해알일수업는것
 이다 이제갓차자의김흔부모의압해서 책이나읽고 어리광이나부리든몸으로
 오날은소나물고 식은밥이나엇어먹게되여스니... 더욱쫓안인 사라의아버지
 에 구원을힘입을줄이야엇지 꿈에나생각하여스라 이로부터상현이는이러하
 여 다시사라의집에외로운몸을붓치고잇게되엿더라 그때사라는겨우아홉살박
 게되지안은 아모철도물으는어린애여섯다 그러나두아해재이는 지극히조아
 서 먹을것을보와도 서로볼으고 고히것만보와도서로난우워 비록친남매간
 이라도 이에서더할수는업섯다 과연알수업는것은 인사의변천이다 이두아

失戀의 淚

해가장대 서로부부가되리라고야 누가쫓하여스리요 더욱오날와서는그리쫓
 든새이가 그갓치도어그리질줄이야 참으로해아리지못하여슬것이다 이두아
 해가 부부가되게된것은 간단이쓰면이러하다
 X X
 재가노래하고 버들가지가춤추는 일은봄엇던날오후여섯다 사라의아버지는
 상현을 가까이불너안치고
 『상현아 보통학교는이왕맛쳐스니 지금은다시상급학교로들어가야하지안겠
 니 그런대너는 엿던학교로들어가라느냐?』
 사라의어머니는 엽해안져 바누질을하고잇다가 찜작놀나며
 『뭐 저어린것을 서울노보내요』
 『어리긴무엇이어리단말이요 나히가열여섯살이나되엿는데』
 『말이열여섯살이지 아직아모철도물으는것을 혼자보내고 마음이되어야지
 요 그리보내시라거든 집에서한문이나 멧해더읽히고 나이드좀차거든보
 내시지요』
 부인은 상현을사랑하는마음으로 극력만류한다 사라의아버지도 역시그럴
 듯하여 다사상현을돌아보며
 『그러면 한일년집에서복습이나하여가지고 명년에사라도학교를맞치거든갓

失戀의 淚

『치떠나게 하여라』
상현은 그저 유유할박게... 사라의 아버지는 목수히안저무엇을생각하는듯하
더니 다시 입을 열어

『네게는 아직이런말을할때가 안이다만은... 너도알다시피 우리슬하에야
사라밖에또누가잇느냐 그래서우리내외는 너를괴출갓치사랑하는터이라』
사라의아버지는 무엇을말할가말가하며 망사리는듯하더니『에라말해버러라』
하는듯사 다시 입을 연다

『상현아 우리내외는네게한가지 청할것이있다 너는들어주겠니?』

다짐받듯사 한번채처뭇고나서 대답을기대리는듯사 상현이얼굴만바라본다

『아모일이든지 제힘으로할수잇는것이면 듯다뿐이겠습니까』

상현은 무엇을청하려는지 의아한마음을 금기어려워『제힘자라는것이면...』

『이라는 조금안발뻘할곳을 남겨두고대답한다

『우리가 네게청할것이있다하니까 너난혹시의아하게 생각할지는몰으나 우
리가청하겠다는것은 그리어려운일은안이다

사라의아버지는 먼저상현의마음을 안심시키고나서

그칭이라는것은 별것이안이라 사라의일생을 네게다부락하라는것이다 너
는이것을아마 들어줄러이지...』

失戀의 淚

듯지안어서는안된다』 하난듯한 어조로말을맞친다 상현은아모대답도업시
고개만숙이고안저있다

『그렇게잠자코안저이슬것이안이라 네가생각하는대로말하렴으나』

비록 몸을불과물에다가너으라한다하여도 사양하기어려운 은인의내외가무

엇을별다삼히하며말하는데 설영마음에실라하여도 못하겠다고는할수업는처

지여든 하물며사라 일생을부락함이라 상현은어린마음에도 무한이깃뻘다

그래서공연이얼굴이 확근확근하여지며 엇절줄을모르다가 다시또못는말에

겨우목안에잠긴소래로대답한다

『네』

상현은『네』하고 대답은하고나서도 너머복그러운마음에 그『네』한의미
를알수업섯다』 그것이실라고하는말인지 그것이그렇게하겠다는말인지 또는
주인내외가 그것을알어들었는지』 그래서가만이눈을들어 주인내외에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라의아버지는 희색이만면하여 부인들을아보며

『우리는 이것기쁜일이 다지는업겠소

다시 상현을향하야

네가 그갓치허락을하여주니 우리의마음에 대단이깃부다 상현아 오날

분허라도 우리를장인장모라고알어다고 우리도너를사위라고 생각할허이다』

「네—」

상현은 여전이입속에말도 대답한다 사라의 아버지는 다시말을이어

「너는 지금한말을잇쳐서는안된다 그리고 사라도오날부터는 네안해될사
람이니사 모든것을 잘가라쳐주어라」

이명령비슷한말이 상현의가슴에는 무한이깊부게들이었다 부인도깊분빛이
가듯하여

「우리는 너갓흔사위를두게되니 무엇보다도김부다 일후라도편치말고 내
々새이쫓게지내어라」

「네—」

상현은 그저「네—」소리밖에는 아모대답할말을알지못하였다
이것저것도모지 아지못하는사라는 마침학교에서돌아오며

「아이고배곱하 어머니밥좀주세요 내일은졸업식을한다고해서 교실을정돈
하여노앗드니 엇지배가곱흔지모르겠서요 그리고어머니 아버지도내일다
오시라구요」

사라는 동신부와안내장을 아버지에게들인다
아버지는 동신부를먼저퍼보드니 허々우즈며

『이번은일호구나 에—거공부잘하였다 내가상을만이주어야겠는걸』

「그럼 아버지 상으로 구두나한겨레사주세요」

「구두가 그것케신고십흐니 소학교학생이 구두는해멸하게 하하 왜당어
는실으니?」

「네— 다른애들도 구두를다신어셔요」
사라는 밥술을들다말고 상현을바라보며

「참 쌀박이졌네 오라버니도 내일가치가세요 네—」
「가지……」

사라는 상현이를일상음바라고불는다 평일갓흐면 동신부도갓치들이다보며
공부를잘하였다고 칭찬을무수하였슬상현이가 엇전지사라를칭찬하는것은자
괴를자괴가칭찬하는듯하여 동신부를보기는고사하고 사라의얼골도바라보지
못하고 쥘쥘떨어지고있다 사라의뜻은말에 말대거리만신집어내어놓코 말
쥘리는 우물우물하여 버리고만다 사라는이상하게생각되어 어머니를바라
보며

「오라버니 왜썩중들이세요?」

「썩중은 왜」

「그러면 오라버니 얼골이왜저떨가요」

새—르꺼져서안져잇난 상현의얼골을 다시한번들여다보며 어머니에게물어

본다 상현은 한층더 얼굴이 불거지며 아모말도업시 일어나서 박그로 나아가간 다

『암만해도 알수업네』

사라는 혼자말비듯이 말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번가라가며 바라본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아모대답도업시 빙그레하고웃기만한다 사라는 점々이상하여만져서

『밥이나먹고 어티오라버니더러 좀썩스이 물어봐야 어머니는말심을안니하시니』

사라는 불이낫케밥을퍼넛코나서 물드채마실틈업시 상현이가거처하는건은 방으로뛰여간다 사라의아버지는 우슴을참지 못하고 부인을바라보니 부인 도역시웃고있다 두내외는 다시귀를기우리고 무엇이라고못나하고 건은방 을바라본다

이러하여 상현과사라새이에는 일생이제일중대한언약이매쳐졌다

三.....一

사라에게는 이상적인물이하나있다

그사람은 단지이상적인물이요 애인은안이였섯다 사라는그사람을사랑하기

에는 너머도자기에분수에넘친다고까지생각하는사담에 그사람을사라에애인 이라고하는이보다 천사갓치충배하는 한낫존경하는사람이라고하는편이 더 한층덕담한절명인듯하다

따듯환볼벗은 모든만물을간지리는드시 아물아물하며빗치아고있다 S 학교 에서는 과업을맛친다는종소래가 『쌩그렁』 울어나온다 지금이야자유 로놀게되었다는드시 각교실에서는 동모들을부르는소래우슴소래가 한데서 기여 웅성／＼늘이기시작한다 저근듯하여 한손에는양산을들고 한손에는 책보를받치는 어린처녀들이 무리무리뻘뻘하여 제각금친한사람들끼리한데 모여짓거리며 문이메어나아온다

『그양반은참조켓서요 나도그갓치좀단어나보아스면.....』

『글세 나도박사는못돼도 외』 세계를일주나하여스면.....』

엽해서듯고만걸어오든학생하나 우스며농담비슷하게

『바라긴편도바란다 너웬돈이니 그것케돌아담기게 하스』

『웨업서 우리집에잇는것이 모도돈인데 호호 또업스면못하나 그이도돈

한푼업시공부까지도하지안었니』

『아이고그이야별다른사람이니사 예외로취급하여야지.....그런대 그일홈이

뭐라고하였는지?』

『안재수 박사라고 하지안튼』
 『오! 참 안박사... 내일 무엇을 강연하라누 야 마유학하든이야기를하겠지』
 『그야들어 봐야알지 너 미리알기는도잘하드라』
 『그러나마두고보렴 내말이올치안으나』
 『어디두고볼가...』

이것이 여러학생들에입으로부터 입으로 옮겨가는말이였섯다 이여러처녀에입에올내리는 안박사라는사람은 금년봄에 양행을맞치고 돌아온 안재수(安載洙)라는 당년삼십일세되는청년이다 이사람은 온전이자괴손하나로 학비를벌어 오래동안구주각국에유학하고 돌아오는길에 켄푸리취에논문문을 제출하여 학위짜지엇게되엇다 여러사람들은 그학위보다도온전이고학으로 성공하였다는것을 한층더공경하게되엇다 돌아온후에는 다년연마한두뢰와 예민한관찰도 이혁에서늦긴자괴의사상을 엇던신문지를벌어 『과학상으로본 조선에위치』라는제목으로 사주일이나걸이는기!」 논문을발표하였다 그 논문은 우리사회에대하야는 과연정문일참(頂門一針)이여섯다 그래서학자간에도 만은존경을받고 일반사회서도 재포부(抱負)를엇던방면으로 쏘아도으려나하고 모다궁급하게기대리고있다 그러나그후부터는 일절투고(投稿) 갖흔것도하지안코 엇던회석갖흔데도 별노출석하지안이하엿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일생을다하야 내기하는큰저작(著作)에힘을기우린다고 평평이자々하다

박사는성질이안은한사닭인지 분요한교편을 잡기를원치안이하엿다 그러나 S 학교교장과는 연래로친할뿐안이라 이번양행에도 만이힘을쓴사닭에 마지못하야 일주일에두시간씩 과외(科外)로강연만하게되엇다

유명한선생이 특별이자괴학교에서만 강연을한다고하니까 여러학생들은자괴가이학교학생된것이 무한이깃버서 학교안에는 이삼일전부터 피기만하면 이이야기뿐이다

그리기대리든 그날이왔다

실상은 하나박게업는안박사에얼골은 여러처녀에가삼가운대는 마치그릇에 담은물모양으로! 혹은동글게 혹은모지개 혹은검개 혹은히개! 제각기조아하는대로낫하낫다 마침내연단우에낫하난안박사의얼골은 여러처녀들에게가삼가운데낫하낫든 수만은허상(虛像)의모든미점은 다갖추어가지고이섯다! 다년몸에익은웃맷사 단정함용모 고흠수염 맑근목소래! 박사의용모는 말서여러처녀들에게 곱흔암시를주엇다 그래서그들에마음에는 모든여성에미몽을새우려고낫하난 천사와갓하섯다 아모런말을하여도 그대로수궁하여바리고 저입에서야설마거짓말이나오라 하리만큼박사를밋게되엇다

失戀의 淚

때—처음 교장의간단한소개가잇스뒤에 박사는 『문학파여성』이라는연제로 한시간이나결이는 기—강연을하였다 박사는처음문학을말하고 다 음여성을말하고나서 문학에대하여성의관계로말을맛쳤다 그가운데는 연애란무엇이며 그것을얼마나 신성한것이라고도말하고 심지어실연된비애는엇더케쓰리다고까지말하였다

실낱갓치가늘고도 연한풀뭇매치이슬갓치 묘령에어린가살들은 몹시흔들었다 강당으로서나오는모든처녀들은 누구하나 눈물을먹음지안이한사람은 없다 그들에귀에는 아직까지도

『…… 천녀의화신갓흔녀시인샷포—가 엇던청년에개실연을당하고 놓고도 맑은천상의광명을사모하여 마침내수십길이나되는바위우에서 사나운물결에 몸을던지고말어셔요 그때에슬픔이라는것은 당자가안이고는 도저히상수할 수도없소 만일누구든지 그때샷포—에심리를성명할수가있다고하면 그사람은 데모스데네스아상의웅변가라고칭찬할수밖에없소 우리는 이것치쓰린실연은 어대로부터나왔느냐하는것을 차져보지안을수없소 왜요? 우리는그것을피하지안으면안될사담이지요 그러면그원인은어대잇을사요?』 나는 이상이너모큰사담이라고말하고집소……』 라는연설에일부분이 들이는듯들이는듯하며 짜라서샷포—의애처러운얼굴이 아리—하게되이는사담이여섯다

失戀의 淚

사라가 이상적인물이라고중배하난사람은 이번이강연에주인되는 안박사그사람이다

사라는처음으로 연약한여자의몸에도 피가잇고 살이잇스며 짜라서귀여운정령과중대한사명까지도 존재함을깨달았다 그뿐만이라 아모리동경하며차저도차질수업든무엇을 오날이야비로소차저내었다 그래서사라는 공연이얼굴이확구확구하고 가슴이알수업사 두근두근하였다 가치들은 영자에늦김은 누구에눈에든지찌이리만큼 한층더차절하였다—아마도그처럼 소극적성질을 가진우에다가 또한층역경(逆境)에까지서서 고민하는사담이나안인지—적으나마 일조에희망에빛을 발견한사라갓흔용기는업고 점점비에검은거림자만 짙어들어가는듯하여되인다

영자는호을노 『죽엄』 『죽엄』 하며 자기도모르게몇번인지 되뇌이고있다니 사라을바라보며

『사라 샷포—갓흔천재는업슬망정 우슴으로죽엄에길로나아갓스면……』

『우슴으로요? …… 알만그래도 용이한일이안이겠지요 나갓해서는 무서워서 죽지는못할것갓해요』

『네— 무서워서 ? ……』

영자의얼굴에만 하층더창백한빛이낫하나며 김고김흔수심의못(池)가운데로

失戀의 淚

三.....二

홀너드러가는듯하였다
 절집든봄도 어니듯저무러져서 강당엽해서 잇는수양버들가지도 지금은푸른
 빛으로외나 목을가리워버라고 그호리／＼하게 아를답든가지들은 하나도
 차저낼수업시되었다 다만첫여름훈순한바람만 약한가지를흔들고저내여간다
 두처녀의나원인잔디밭해서 머닐이바라뵈이든 쌀／＼간이버섯든널은빛도 모
 다보리이삭으로덤벼바리고 쌍쌍이날어들든누렁나뵈대신에는 오직불잡자리
 만일엽는듯시 한가히떠돌고있다 봄철노부러차차여름철노변하여갈때는 여
 림으로부터 가을철노변하여갈때까지 그리쓸々한빛은적으나 그래도뜻업시
 홀너가는 금오(金鳥)의그림자는 여려처녀들의아름다운봄을뻐아서가는듯하
 여 정신이산듯한푸른녹음도 애처러운정회만한총더김게하다
 하사말은 이상을동경하여 마음을것잡지못하나 하사말은외로운신세를한탄
 하야 절거운날이업다 사라는적々한괴속에 의로운몸으로 날이갈수록점
 점점으러가는봄빛을악기여 밤마다아참마다 애처러운심사가개일날이업다
 한번박사의강연을들은후부러는 박사의붓으로기록한것이라면 미문 논문할
 것업서 모조리쫓차가며읽어서 박 가쓴것치고 사라의눈이한번저내여가지
 안은것은 하나도업다 한귀절을읽고는 한번한숨을쉬이고 한번한숨을쉬이

失戀의 淚

교는 또한귀절을읽어 읽고々々또다시읽어 거의뺏칠줄을아지못한다 그리
 하야 그가운대엇더한것은 전부외이다심히하고야만다 그뿐안이라 박사의
 강연갓흔것아라도 박사는단지우주의신비를 알부분만겨우말함에지내지못한
 다－박사자신도 그것을철저히는아지못한다－ 그러나 박사를송배하고 박
 사를사모하는사라에게는 평범아하는말까지도 김히々々가삼속으로 실미여
 들어가는듯하였다 그래서조금안그르럭이만잇으면 거기다가살을찌우고 분
 을바르고 향수를뿌리고 옷까지입히여가지고는 그것을무한이사랑하며 무
 한이어르다가 마침내김속한곳으로 남못보게감초와버리고만다 사라는맛참
 내 선생그사람이 꽃신비에근원(神祕의根源)이요 미에결정(美에結晶)이라
 고까지밧게되어 박사를송배하고 박사를사모하는마음이 날이갈수록점점김
 허져서 지금은그마음외에 또한가지이성한 무엇할가지게되었다
 어제부터흐릿흐릿하여 금세라도소내가한보지락내릴듯하든읽기도 아참이
 되면서는 맑은하날과슬슬푸는바람이 언제그렸든듯도하지안라 아참을막필
 하고는사라는 남편창을조금안치열고 맑게개인하날을바라보고안져있다 사
 라의정신은 맑고검은눈동자를홀너나와 한업시머그공중으로 빙빙떠돌아단
 긴다 누가엽해서잇소리대이는듯시 사라의눈동자는 언으듯벽에결인안박사
 의초상사진으로움기여간다 사라는정신업사바라보며 「고같은한얼굴 아름다

운까지서—식수염 고상한학식—눈으로이갓치말했다 그리고나서는다사임을 열어

『나는 진정으로당신을송배합니다 누가만일 『엇더한사람이 당신의회상적 인물이요?』—하고물을것갓흐면 나는서슴지안코당신이라고대답하게서요 네?선생? 나는 이갓치도당신을송배합니다』

사라는 말을맞치고나서 대답이나기대리는듯시 말동하고바라본다 그러나 박사는 아모대답도없다 사라는몸을일어 벽으로갓가이걸어가며 박사의초상사진을썩러질듯시들여다본다

『나는이처럼당신을...왜아모대답도없서요?』

그러나박사는 여전이대답이없다 아모의식도없는잡지에서 돌려내이초상사 진이 대답을못할것은 다투지못할사실이다 사라는 그런줄을때이알면서 도 듯고서도대답을하지안는듯시 회중을버리고내며해기도라선다

『에라 고고만뒤라 말하는내가글치...』

사라는 두어발거름걸어가다가 그래도또무엇이 못잇처지는듯시 다시돌아서 며 벽을또한번바라본다

『아모래도 사내다운사나히다』

사라는 맥업시책상압해 퍼를석주저안즈며 다시머그하날만바라본다 홀연무

엇을생각한드서 책상결합 보드니 분옹빚것장을붓천저근책하나를쓰내들고 무엇을찾는지 하참뒤져리다가 한곳을유심이들여다본다 그곳에는이갓치 써워잇다

三月十七日 情 微風

아착을맞치고나니 마침상합종이올어나왔다

오날은영어와대수뿐이여섯는데 과정나제나하지안을만한자신은잇게 칠우 었다 에—안제는세가지만더칠우면 이학교에서시험이라고는 마지막이다 아!아! 얼마나김부랴 나는무엇보다도 이것을김버한다

그러나이보다도더욱김분일한가지들 나는알었다 그것은? 나는그사람을 차즌것이다—나의마음가운데 사람을...외인세계를다준다하여도 박구지 안을그사람을 나는차졌다

아!아! 얼마나김부랴 일후에이일괴를읽을때에 나의마음이엇더할지를 나는미리안다

사라는 읽기를맞치고나서는 가비엮게한숨을한번쉬인다

『그날이다그날이다... 그러나오날갓치 이렷케마음이괴로울줄은 꿈에도

생 지못했다』

사라는 다시언더나나인을 그은『마음가운데사람』이라는것을 물그림이들여